

# 남대 일대의 포유류

조현규\*  
서울대학교\*

## 요 약

남대 일대에 대한 포유류조사는 2018 년 11 월에 실시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아종을 구분하여 총 5 종이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I 급은 확인되지 않았고, 보호종은 0 종이었다.

## 1. 서 론

남대(도엽번호: 378154) 일대에 대한 기존의 포유류조사는 환경부 3 차 전국자연환경조사(2012)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이 조사는 제 4 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일환으로 포유류의 현황 및 서식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 2. 조사지역, 조사일정 및 조사방법

조사는 남대(도엽번호: 378154) 일대에서 실시되었으며(그림 1), 자세한 조사일정은 표 1 과 같다. 조사대상지역은 1:25,000 지형도를 9 개의 격자로 나누어 모든 격자에 대하여 3 회씩 실시하였다.(그림 1), 조사방법은 “제 4 차 전국자연환경조사 포유류 지침서 개정” 을 따랐다(국립생태원 2016).

표 1. 조사일정

격자 \ 조사	1회 조사	2회 조사	3회 조사
E1	2018. 11. 8	2018. 11. 9	2018. 11. 16
E2	2018. 11. 8	2018. 11. 9	2018. 11. 16
E3	2018. 11. 8	2018. 11. 9	2018. 11. 16
E4	2018. 11. 8	2018. 11. 9	2018. 11. 16
E5	2018. 11. 8	2018. 11. 9	2018. 11. 16
E6	2018. 11. 8	2018. 11. 9	2018. 11. 16
E7	2018. 11. 8	2018. 11. 9	2018. 11. 16
E8	2018. 11. 8	2018. 11. 9	2018. 11. 16
E9	2018. 11. 8	2018. 11. 9	2018. 11. 16

### 3. 결 과

#### 3-1. 전체 포유류 현황

남대 일대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아종을 구분하여 총 5 종이었다(표 2). 이를 격자별로 보면, E1 이 3 종, E2 가 0 종, E3 이 0 종, E4 가 2 종, E5 가 0 종, E6 이 0 종, E7 이 0 종, E8 이 2 종, E9 가 0 종이었다.

표 2. 남대 일대의 포유류 현황 (○: 출현, -:미출현)

종명	각 격자에서 관찰된 종								
	E1	E2	E3	E4	E5	E6	E7	E8	E9
두더지	-	-	-	-	-	-	-	○	-
너구리	○	-	-	-	-	-	-	-	-
멧돼지	○	-	-	-	-	-	-	-	-
고라니	○	-	-	○	-	-	-	○	-
청설모	-	-	-	○	-	-	-	-	-
합계(총 5종)	3종	0종	0종	2종	0종	0종	0종	2종	0종

#### 3-2.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 현황

남대 일대에서 확인된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는 산림에서 5 종, 경작지에서 0 종, 수계에서 0 종, 시가화에서 0 종, 도로에서 0 종으로 확인되었다(표 3).

표 3. 남대 일대의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 현황 (○: 출현, -:미출현)

종명 \ 서식지 유형	산림	경작지(논, 밭, 과수원)	수계(하천, 저수지)	시가화	도로(임도 및 지방도, 국도)
두더지	○	-	-	-	-
너구리	○	-	-	-	-
멧돼지	○	-	-	-	-
고라니	○	-	-	-	-
청설모	○	-	-	-	-
합계(총 5종)	5종	0종	0종	0종	0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I·II 급은 확인되지 않았고, 보호종은 0 종이었다(표 3, 그림 1).

표 4. 남대 일대 서식지 유형별에 따른 출현종 서식 흔적수 현황

구분 \ 유형	종명	계 (흔적)	배설물	족적	털	굴	휴식처 (보금자리)	직접 관찰	포획	기타
산림	두더지	1	0	0	0	1	0	0	0	0
	너구리	1	0	0	0	0	0	0	0	1
	멧돼지	1	0	0	1	0	0	0	0	0
	고라니	20	20	0	0	0	0	0	0	0
	청설모	1	0	0	0	0	0	1	0	0

### 3-3.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남대 도엽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I 급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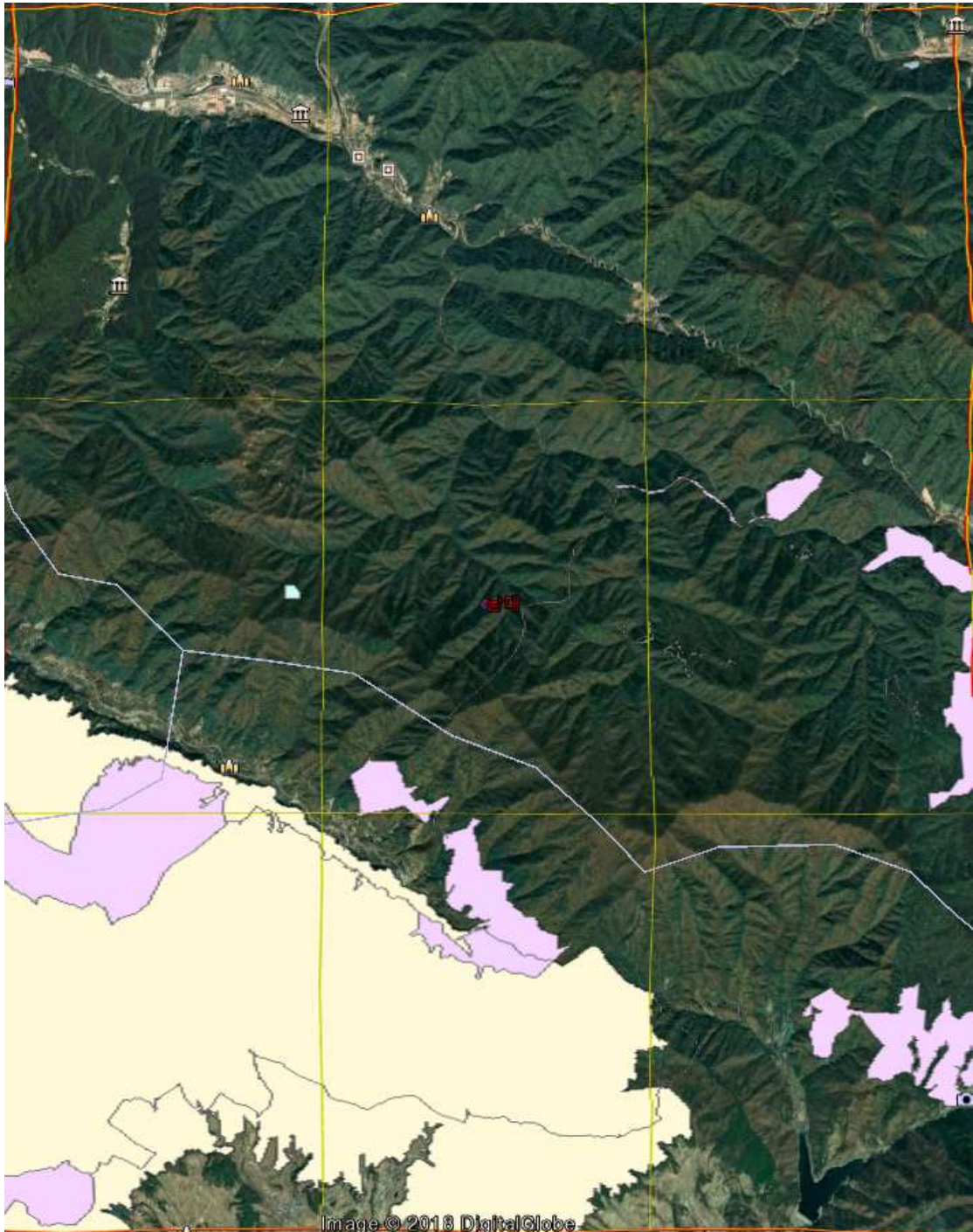


그림 1. 남대 일대 지형도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

## 4. 고찰

남대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된 포유류는 총 5종이었다. 주요 우점종은 고라니였고, 고라니의 흔적 주로 분변의 형태로 쉽고 흔하게 찾을 수 있었다. 주요 포유류가 확인된 서식지 유형은 주로 산림이었고 대부분 혼합림의 식생을 띠고 있었다.

본 조사지역 경우 대부분 백두대간을 지나는 산악지형이었고, 반면 민가와 도로 같은 일반지역은 드물게 공존하는 지역으로 일부지역은 험준한 산악지대, 골짜기, 바위와 같은 조사에 제한이 있는 구역이 있어 저지대와 도로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임도, 등산 상의 능선부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엽 내 주요 산으로는 운교산(922m), 선달산(1,239m)가 있었고 인근에 소하천이 흐르고 있어 소하천 중심으로 도로가 지나고 일부 민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었다. 주로 하부 능선에서 고라니 분변과 너구리, 멧돼지 흔적과 같은 야생 포유류의 서식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침엽림대에서는 청설모의 이동 모습, 고양이와 같은 일반종의 경우는 민가 근처 조사지역의 저지대 및 조림지역 등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남대 도엽은 경상북도(경북 영주) 및 강원도(강원 영월)에 걸쳐 위치한 특성상 백두대간과 큰 생태축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부분 지역이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자연성이 유지되고 있는 산림지역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직접 흔적을 관찰하지는 못했으나, 인근 주민의 자문 등 탐문조사를 적극 활용한 결과, 지역 내에서 멧돼지, 고라니, 고양이와 같은 비교적 흔한 종은 매우 흔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그 외 족제비, 삿, 노루, 오소리, 수달 등도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험준한 고지대 특성상 모든 격자내의 다양한 포유류 흔적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생태환경 및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탐문조사 의견을 수렴했을 때, 이번 조사를 수행한 지역은 포유류 중에서도 최상위 포식자에 속하는 삿, 수달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비롯하여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고, 남대 도엽은 포유류들에게 있어 매우 우수한 생태계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이 지역을 생태계로 이용하고 있는 포유류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태계를 제공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생태계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에 따른 개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인간과 야생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5. 종합 및 제언

백두대간이 지나는 경북, 강원 산림축은 우리나라 생태계의 보고이며 험준하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본 지역 내에서는 과거 지역절멸종인 여우의 사체가 발견되기도 하였고, 다수 천연기념물 포유류종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본 지역의 난개발 우려는 현재로서는 적다고 하겠으나, 인간의 간섭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의 여지는 상시 있는 것으로, 특히 멸종위기 생물종의 보존을 위해 본지역의 야생생물종 모니터링과 관리, 밀렵감시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창희, 이윤경, 배소연, 박소연, 범현민. 2017. 자연환경조사30년. 국립생태원.
- 원창만. 2010. 야생동물 서식실태조사 및 관리·자원화 방안연구 보고서. 국립생물자원관.
- 유병호. 2000. 저 푸름을 닮은 야생동물. 도서출판 다른 세상.
- 윤명희. 1992. 야생동물. 대원사.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 한상훈. 2011. 야생동물 서식실태조사 및 관리·자원화 방안연구 보고서. 국립생물자원관.
- Gary, A. Wobeser. 2006. Essentials of Disease in Wild Animals. Blackwell Publishing.
- Nowak, Ronald M. 1999. Walker's Mammals of the Worl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사진대지

